

한국 현대불교의 동향과 慧菴 性觀의 수행과 교화

오경후*

• 목 차 •

- I. 머리말
- II. 혜암 성관의 수행과 교화
- III. 1947년 봉암사결사와 혜암
- IV. 1994·1998년 개혁불사와 혜암
- V. 맺음말

* 동국대(경주) 외래교수.

© 『大覺思想』 제31집 (2019년 6월), pp.231-257.

한글요약

혜암선사는 성철선사와 함께 한국 현대불교사의 상징적 존재이다. 혜암의 출가는 깨달음과 佛法을 위한 것이었다. 그가 평생 동안 지속했던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의 수행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참여했던 1947년 봉암사결사는 그의 수행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식민지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는 1994년과 1998년 조계종의 혼란과 모순을 청산하는데 앞장섰다. 혜암은 ‘개혁’은 부처님 말씀대로 안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하였다. 결국 혜암의 삶은 철저한 수행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위한 것이었다.

주제어

성철, 혜암, 한국현대불교, 선수행, 봉암사결사, 불교개혁

I. 머리말

혜암 성관(慧菴 性觀, 1920~2002)은 한국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살다갔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와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우리 불교 역시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전통성이 왜곡된 왜색불교의 그늘 속에 있었고, 해방이후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하고자 진력했던 시기였다. 그런가 하면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불교자주화의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혜암은 한국 근현대불교의 질곡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중과 저자거리를 오가면서 부처님 법대로 살기를 염원했고, 두타행(頭陀行)을 통해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지키고자 한평생을 보냈다. 한국 현대불교계는 ‘가야산의 정진불’, ‘공부하다 죽어라’, ‘장좌불와’로 혜암을 기억하고 있다.

구속됨이 원래 나의 뜻이 아니기에	拘束元來非我意
인연 따라 곳곳이 나의 집이었네	隨緣處處是吾家
세상사를 이미 뜬구름 밖에 보냈지만	世事已浮透雲外
피하기 어려운 사정에는 어쩔 수 없네	難避事情正若何 ¹⁾

혜암이 1999년 종정 추대식에서 읊은 계송의 한 구절이다. 인연따라 수행하는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피할 수 없는 격동의 세간사 역시 피하지 않았다. 혜암이 출가 후 장좌불와의 용맹정진 속에서 살았던 인생을 가장 짧고 선명하게 묘사한 계송이라고 할만하다.

혜암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혜암선사문화진흥회가 그의 생애와 사상을 규명하는 학술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²⁾ 그러나 혜암의 입적 후 그의 법어집이 간행되었고³⁾ 생애와 수행

1) 혜암문도회, 『혜암대종사법어집』 I, 해인사원당암, 2007, p.270.

2)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제1회학술대회』, 2014.

3) 혜암문도회, 『혜암대종사법어집』 I·II, 김영사, 2007.

의 흔적을 정리했으며⁴⁾ 최근에는 해암의 문도와 인연 25인이 그의 수행력을 기리며 추모하였다.⁵⁾ 이밖에 불교계는 그의 생애와⁶⁾ 1994년과 1998년 종단개혁 당시 해암이 보여준 위법망구(爲法忘軀)의 행적을 기리기도 하였다.⁷⁾

이 글은 한국 근현대불교의 혼란과 변화, 그리고 안정의 흔적 속에서 해암의 생애와 行化를 살피고자 한다. 해암은 식민지불교의 잔재청산과 불교 자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한복판에서 정법안장을 지키기 위해

-
- 4) 정찬주, 『가야산의 정진불』1·2, 랜덤하우스, 2010. ; 정찬주, 『공부하다죽어라』, 열림원, 2013.
- 5) 해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해암』, 김영사, 2018.
- 6) 원각스님, 「나의 스승 해암 큰스님」, 『海印』 322, 해인사, 2008.12, pp.17-21 ; 해암스님, 「공부 위해 텅 비워야」, 『禪苑』 144, 선학원, 2007.7/8, pp.32-33. ; 佛光會, 「해암(惠庵) 스님: 전생에 지은 복을 알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원망하며 부질없이 허덕이네」, 『佛光』 374, 佛光會, 2005.12, pp.53-57. ; 해암선사(慧庵禪師), 「화두(話頭)를 참구(參究)하는 법」 ; 다시 듣는 禪窓夜話), 『禪文化』 통권50호, 선문화사, 2004.9, pp.46-48. ; 여연, 「은사스님께 바치는 차 한 잔의 시: 해암 대종사 열반 2주기를 기리며」, 『海印』262, 해인사, 2003.12, pp.26-27. ; 김재경, 「해암스님」, 『禪苑』98, 禪學苑, 2003, pp.30-31. ; 편집부, 「한국 정통 산맥을 계승한 해암 스님」, 『설법』 142, 설법연구원, 2002.4, pp.22-23. ; 해암, 「臨終偈-해암 대종사 열반송 친필」, 『海印』 240호, 해인사, 2002.2, p.13. ; 지관, 「중정 해암 대종사 행장(行狀)」, 『海印』 240호, 해인사, 2002.2, pp.10-12. ;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다: 조계종 중정 해암스님 열반」, 『禪文化』18호, 선문화사, 2002. 1, pp.134-135. ; 편집부, 「해암 큰스님 가시던 날」, 『불광』 328, 佛光會, 2002.02, pp.10-12. ; 병진, 「열반에서 다비까지:해암 큰스님 다비장 참관기, 문이재, 2002. ; 탁마병안, 「해암선사, 다시 듣는 범문」, 『佛入』 38, 대한불교불입종 세간불교사, 1998.6, pp.15-18. ; 「해암스님을 찾아서」, 『고경』 2호, 백련불교문화재단, 1996. ; 원용, 「두타행이 끊어지면 정법안장이 끊어진다」, 『해인』 240, 해인사, 2002.
- 7) 성철, 「성철스님 범문을 통해서 본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 1995, p.115. ; 박재현, 「조계종 종단개혁불사」, 『선우도량』 6, 조계종선우도량, 1994. ; 박재현, 「개혁회의 평가와 종단의 방향모색」, 『선우도량』 7, 조계종선우도량, 1995. 7. ; 편집부, 「종단개혁, 그 장엄한 진행과정」, 『선우도량』 6, 조계종선우도량, 1994, 5. ; 불교인권위원회, 『화합을 위한 이해와 용서』, 90년대 종단사태의 회고와 반성 좌담회 및 토론자료집, 불교인권위원회·조계종승려사면복권추진위, 2001. ; 박재현, 「1994년 종단개혁 이후의 변화와 성과」, 『참여불교』 3·4월호, 참여불교재가연대, 2004. ; 김광식, 「봉암사결사의 재조명」,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진력한 인물이다. 현재 불교학계는 근대불교에 대한 체계화뿐만 아니라 현대불교의 객관적 이해의 기회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해암이 보여준 위법망구의 수행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귀결되었는지 제시할 것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한국 현대불교에서 그의 행적이 불교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해암 성관의 수행과 교화

해암은 출가 이후 가야산 해인사 선원, 희양산 봉암산 선원, 오대산 상원사 선원, 금정산 범어사 선원, 영축산 극락암 선원, 지리산 상무주암, 조계산 송광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당대 선지식인 한암·효봉·동산·경봉·전강 선사를 모시고 45년 동안 일종식(一種食), 오후불식(午後不食), 장좌불와 용맹정진을 하며 참선수행으로 초지일관했다.

큰스님의 두타행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리산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토굴에서 쉬 없는 정진을 하셨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만 가려주는 지붕이 있으면 그곳을 도량삼아 정진하셨습니다. 잠을 이기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설악산 오세암에서는 서서 대변을 보셨어요. 또 목에 줄을 감아놓고 화두를 참구하셨어요. 졸면 바로 목이 조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야산 중봉암에 계실 때는 일부러 밤에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지계를 지고 가야산을 다니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물리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진각 스님은 해암 스님의 유일한 집착을 폭로하기도 했다. “큰스님의 유일한 집착이 바로 공부와 깨달음입니다. 너무 애착이 강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큰스님께서서는 결국 도를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⁸⁾

8) 진각, 「휴식의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위대한 수행자」, 『스승 해암』, 김영사, 2018, p.277.

제자 진각이 기억하는 혜암의 모습이다. 스승은 공부와 깨달음이 유일한 집착이었으며, 공부를 위해서라면 서서 대변을 보았고, 목에 줄을 감았으며, 잠을 물리치기 위해 밤에 지계를 지고 다녔다는 것이다.

혜암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보통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불교경전과 위인전을 즐겨 읽었다고 한다.

나는 이제 사바세계 인연이 다하여
 無爲의 부처님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바라건대 너는 속히 출가승이 되어
 너의 佛性을 밝게 깨닫도록 하라.
 장차 내가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지 알게 되리라.
 네가 진정 대장부라면 佛祖가 모두
 너의 심부름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책을 내려놓고 나가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고서
 단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는 응당 알아야 한다.
 만약 네가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안다면
 무익한 망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혜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글이다. 혜암은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하여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던 중 크게 발심하였다. 그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일본 임제종의 고승 일휴선사(一休禪師)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었다. 혜암은 일본 고승전집 속에서 ‘일휴선사자모유언문(一休禪師 慈母遺言文)’을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감격에 겨워 며칠 동안 밥을 굶었다고 한다.⁹⁾ 뿐만 아니라 운서 주공의 『선관책진(禪關策進)』을 읽던 중 마음을 ‘종이와 먹으로 만들지 않은 경(經)’에 비유한 계송을 보

9)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열림원, 2013, pp.67-69.

고서 입산하여 마음공부를 해야겠다고 출가의지를 불태웠다. 마침내 혜암은 1946년(27세)에 해인사에 입산 출가하여 인곡(麟谷)을 은사로, 효봉(曉峰)을 계사로 하여 수계득도(受戒得度)하였으며, ‘성관(性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리고 가야총림 선원에서 효봉 스님을 모시고 일일일식(一日一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며 첫 안거를 마쳤다.

장좌불와를 하게 된 동기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선관책진』이란 책을 읽다가 장좌불와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도 장좌불와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절에 들어오는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3일, 5일, 7일이면 견성한다고 기록해놓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일주일이면 깨치지 못할 것 있겠나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5일 만에 깨친다고 하니 나는 넉넉하게 일주일을 잡아서 견성 성불 해야겠다. 하고 이주 결심을 했습니다. 화두는 효봉스님한테 땀지요.¹⁰⁾

혜암의 장좌불와 의지는 스승 인곡의 경책도 한몫했다. 인곡은 혜암에게 “지금 당장 죽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장삼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또 세상의 보물은 전답이 보물이 아니고 화두가 보물이다.”라고 했으며¹¹⁾ ‘청정계(淸淨戒)를 수호하여 정진, 불퇴전(不退轉)하면 구성성불(究竟成佛)하리라. 머리를 만져보고 법의(法衣)를 돌아보고 대중처를 떠나지 마라. 지옥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가사 밑에서 인신(人身)을 잃어버릴 일이 고통이니 이 몸을 이 세상에 건지지 못하면 언제 건지리오.’라고 하면서 경책했다고¹²⁾ 한다. 스승의 이와 같은 경책은 평생의 지남(指南)이 되기도 하였다. 1951년 스승 인곡은 제자의 공부를 점검하고 ‘혜암’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이후 혜암은 이듬해 성철을 따라 봉암사결사에 동참하면서 일제강점기

10)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열림원, 2013, p.32.

11) 정찬주, 위의 글, p.35.

12) 혜암문도회, 『혜암대중사범어집』 I, 해인사 원당암, 2007, pp.228-230.

이후 한국불교가 직면한 여러 모순과 한계에 직면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자’를 실천하면서 청정가풍과 정법안장의 의미를 되새겼다. 혜암은 그 후에도 통영 안정사 천제굴, 설악산 오세암, 오대산 서대, 태백산 동암 등지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더욱 고행 정진했다.¹³⁾ 혜암의 수행과 관련한 수많은 행적 가운데 오늘날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일화가 있다. 한국전쟁 직후 혜암이 범어사 동산의 회상에서 하안거 결제때의 일이다. 당시 사중의 강사가 보제루에서 선어록을 강의한다 하여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던 다른 대중스님들은 선어록 강의를 들으려고 정진 시간에 좌복을 비운 일이 있었는데, 혜암만 큰방에 혼자 남아 정진했다고 한다. 마침 동산이 선원대중을 경책해 주기 위해 큰방에 왔을 때 혼자 정진하고 있던 혜암을 보았다고 한다. 해제 날, 동산은 법상에 올라 ‘이번 결제 동안에 제대로 공부한 수좌는 혜암이 뿐이다’ 하며 혜암에게만 안거증을 수여하였다고 한다.¹⁴⁾ 수행만큼은 원칙을 고수했던 혜암의 성품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다. 공부와 깨달음이 유일한 혜암의 집착이었다는 제자 진각의 회고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38세 되던 1957년, 혜암은 오대산 영감사 토굴에서 밤낮으로 용맹정진하던 중 홀연히 심안(心眼)이 열려 오도(悟道)했으며¹⁵⁾ 1976년 지리산 칠불암 운상선원에서는 청색 사자를 탄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계승을¹⁶⁾ 수기받기도 하였다.

이(理)와 사(事)의 경계를 허물고 1981년부터 원당암에 選佛堂이라는 재가불자선원을 개원해 함께 수행을 하며 직접 지도를 했다. 선불당은 스

13) 혜암문도회, 『혜암대종사법어집』Ⅱ, 김영사, 2007, p.370.

14) 대오, 『큰스님은 진정한 부처님제자』,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pp.252-253.

15) 오도승은 다음과 같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迷則生滅心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悟來眞如性]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부수니 迷悟俱打了 해가 돌아 하늘과 땅이 밝도다.[日出乾坤明]

16) 때 묻은 뾰족한 마음을 금강검으로 베어내서[塵凸心金剛劍]

연꽃을 비취보아 자비로써 중생을 섭화하여 보살피라.[照見蓮譚顧悲]

님들과 마찬가지로 재가불자들이 하안거 동안거 수행을 하는 곳이었다. 대종사는 평소대로 장좌불와로 철야정진을 하며 신도들과 함께 오전 3시와 오후 7시에 죽비로 예불을 올렸고, 오후에는 도량청소와 울력을 함께했다. 대종사는 신도들과 함께 참선을 하는 것만큼 확실한 대중교화가 없다는 것을 직접 실천했다. 대종사가 함께 했던 선불당 재가선원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할 만큼 많은 대중들이 참여를 했다. 대종사의 재가불자선원은 지금 템플스테이와 각 사찰 출가수행의 원천이 되었다.¹⁷⁾

흔히들 수행자의 완전한 깨달음은 자신의 오도에서 멈추지 않고 입전수수(入塵垂手)의 대중교화라고 한다. 혜암 역시 대중교화와 그 사상은 수행을 통한 사부대중 공동체의 건설이었다. 선수행과 불교적 사유를 통한 생활철학은 개인과 국가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과 법문을 통해 보여주었다. 1981년 원당암에 주석한 혜암은 재가불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선원을 만들어 한국불교 최대의 재가불자 선원이 되었다.

대종사께서는 우리시대 수행자들이 가져야할 5가지 요체를 남겼다. 첫째는 밥을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공부하다 죽으라는 것이다. 셋째로는 안으로 공부하고 남을 도와줄 것, 넷째로 주지 등의 소임을 맡지 말 것, 다섯째로는 一衣一鉢로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⁸⁾

혜암은 돈오돈수가 반야삼매고, 증오(證悟)고, 성불이고 구경각임을 확고하게 믿었으며, 수행자들이 그것을 증득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당부하였다. 그는 ‘공부하다 죽으면 수치맞는다. 좌복에서 죽는 수좌가 제일 복이 많은 수좌다.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말할 정도로 참선공부를 강조하였다. ‘안으로는 정진하고 밖으로는 남을 도와야 한다.

17) 여연, 『가야산의 대쪽, 혜암 성관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제 1회 학술대회』, 혜암선사문화진흥회, 2014, pp.25-26.

18) 원각,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원력 보살 큰스승』, 『스승 혜암』, 2018, pp.62-63.

인과가 역연한데 수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좌복 위에 있지 않을 때는 늘 호미를 들고 다닐 정도로 너무도 철저히 살았다고¹⁹⁾ 한다.

70대 중반에 선방의 평상 위에서 정진하다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끈을 가져와서 나를 평상에 묶어라.”고 하여 용맹정진을 마쳤던 혜암은 다음과 같은 임종계를 남기고 2001년 82세를 일기로 떠났다. 임종 순간에도 그는 후학들에게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잘해라.”라고 당부했다.

나의 몸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요	我身本非有
마음 또한 머무는 바가 없도다	心亦無所住
쇠로 된 소는 달을 머금고 달리고	鐵牛含月走
돌로 만든 사자는 소리 높여 울부짖네.	石獅大哮吼

III. 1947년 봉암사 결사와 혜암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불교계는 일제침략, 일본불교의 침투와 식민지 불교, 한국불교의 일본화 등에 대한 여러 모순과 직면하고 있었다. 교단 혁신, 식민지불교의 청산, 불교개혁 등의 당면과제는 동시대 불교인들의 화두였다. 당시 교단과 「불교혁신총연맹」과 같은 재야 혁신단체 역시 이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청산과 재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1947년 봉암사결사는 해방공간의 한국불교가 지닌 역사적 과제를 자생적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봉암사결사는 우선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가 결사의 목표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의 우리 불교가 부처님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결사를 계획한 것이다.

19) 대오, 「큰스님은 진정한 부처님 제자」,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pp.248-251.

봉암사에 들어가게 된 근본 동기는 죽은 청담스님하고 자운스님하고, 또 죽은 우봉스님하고, 그리고 내하고 넷인데, 우리가 어떻게 근본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임시적인 이익관계를 떠나서 오직 부처님법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부처님법대로만 살아보자.’ 이것이 願이었습시다. 즉 근본 목표다 이 말입니다.²⁰⁾

당시 불교계는 선학원 계열 수좌들이 중앙교단에 교무회의(종회)에 대의원 3인 청구, 모범총림을 불조청규에 의하여 건설, 중앙선원 자치제, 지방선원 자치제, 도제를 양성하여 선원에 3년 안거 뒤에 출신케 하도록 건의했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²¹⁾ 더욱이 가야총림과 고불총림 역시 고불 고조(古佛 古祖)의 유칙(遺則)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근본주의적인 사고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결국 봉암사결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불조교법(佛祖教法)이 사라지고 퇴색되고 변질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일단의 수좌들의 고뇌가 봉암사결사를 잉태하게 했던 것이다.

봉암사결사는 1947년 10월경에 시작되어 1950년 3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행해졌다.²²⁾ 장소는 김법룡 처사가 기증하기로 했던 대장경을 비롯한 불서(佛書)를 보관하는 곳으로 적합한 봉암사(鳳巖寺)가 수좌들 또한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청담의 뜻에 따른 것이다. 결사에 처음 참여한 사람은 성철·우봉·보문·자운이었다. 그 후로 향곡·월산·종수, 도우·보경·법전·성수·혜암·의현 등 그 구성원이 약 20명 정도 되었지만²³⁾ 그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혜암의 기억은 구체적이다.

20) 성철, 「성철스님 법문을 통해서 본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 1995, p.115.

21) 김광식, 「봉암사결사의 제조명」,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p.44.

22) 봉암사결사는 당시 빨치산이 출몰하여 식량을 약탈하는 사례 등 정치적 사정이 급변하자 고성 의옥천사와 그 말사인 문수암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23) 성철, 「성철스님 법문을 통해서 본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 1995, p.115.

오히려 방부를 못 들여서 야단이었지요. 아무나 방부를 받지 않았거든요. 처음 해인사에서 장경을 싣고 가서 얼마 동안은 한 7, 8명밖에 안 살았어요. 점점 그 수가 늘어나 20명이 30명되고 나중에는 많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청안스님, 보문스님, 우봉스님, 일도스님, 자운스님 등이 계셨지요. 보문스님도 돌아가셨고, 일도스님도 돌아가셨는데, 모두 훌륭한 스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향곡스님, 청담스님 등이 들어오셨습니다. 뒤에 월산스님, 성수 스님, 법전스님 등이 오셨지요.²⁴⁾

1946년 27세의 나이로 출가한 해암이 성철을 만난 것은 이듬해인 1947년이었다. 해암이 공양주 소임을 하고 있을 당시 성철이 큰 삿갓을 쓰고 지팡이에 둥근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육환장을 짊고 해인사에 나타났다. 해암은 성철이 장좌불와 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고 싶어졌다. 당시 성철은 단순히 동안겨 한 철을 나기 위해 봉암사로 간 것이 아니고 뜻이 맞는 전국의 도반을 모아 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²⁵⁾

봉암사 결사를 하면서 발우와 옷을 바꾸고, 능엄주를 하고, 절에서 산신각과 칠성각을 없애고, 보살계를 시설해서 신도들이 스님에게 삼배를 하게 하니가 봉암사 산중에 외도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분도 있었지요. 사실 신도들한테 스님들이 삼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삼배를 시킨 것인데, 어떤 스님은 있지도 않은 법을 자기식대로 만들어서 귀찮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 삼배라는 것이 참 성황했어요. 알고 보면 봉암사에서 실천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正法이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니가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²⁶⁾

해암의 증언에 의하면 봉암사 결사는 당시 불교계의 관행을 변화시켰다. 예컨대 나무발우를 철발우로 바꾸고, 가사와 장삼을 비단으로 쓰지

24) 「해암스님을 찾아서」, 『고경』 2호, 백련불교문화재단, 1996, p.19.

25)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열림원, 2013, pp.175-180.

26) 정찬주, 위의 책, p.87.

얇고 색깔도 붉은 색이 아닌 먹물가사 즉, 괴색(壞色)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혜암은 “(봉암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보조국사 장삼을 60벌 맞췄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루마기에 소매만 넓은 마치 도포자락 같은 장삼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바꾸었지요.”라고 했다.²⁷⁾ 성철 역시 비단가사와 장삼, 목바릿대를 부수고 불 질렀고, 공양주와 부목소임을 없앴으며, 신도가 스님들에게 공경의 의미로 삼배를 하게 했다.²⁸⁾ 아울러 성철이 작성한 공주규약(共住規約)에 의거하여 물 길는 일부터 빨감 마련, 탁발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하였다. 아울러 신도의 시주는 일체 청산하였다. 이와 같은 엄격한 청구 때문에 결사에 동참하기 위해 왔지만, 그냥 가버린 경우도 있었고, 몰래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봉암사결사는 해방이후 청산되지 않은 한국불교계의 일본불교의 잔재 등 불교계의 오랜 비법(非法)을 개혁하고자 했던 혁명이었다.

봉암사의 가풍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청정가풍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지킬 사람은 여기서 살고, 지키지 않을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도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적게 살아도 좋으니까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는 것이 규칙이었어요.²⁹⁾

이와 같은 1947년 봉암사결사는 젊은 수행자 혜암에게 불법의 본질과 수행정신의 전형을 익히고 체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혜암당 성관 종정스님께서서는 한마디로 두타행으로써 평생을 일관하신 분이다. 스님께서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두타행이 끊어지면 정법안장이 끊어진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 … 두타행은 열두 가지의 법으로써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日中一食, 次第乞食, 但坐不臥, 著

27) 정찬주, 위의 책, p.85.

28) 성철, 위의 글, pp.116-118.

29) 정찬주, 위의 글, p.87.

糞掃衣가 그것이다. 일종일식을 줄여서 ‘일종식’이라고 발음하나 ‘일종일식’이며, 잠은 앉아서만 잘 뿐 눕지는 않는 것이다. 이를 포함한 열두 가지 법들이 難行苦行을 위주로 한 피나는 수행을 내용으로 하며, 오로지 밥을 얻어야만 쉴 뿐 그렇지 않고서는 서원코 편안히 쉬지 않겠다는 커다란 원력을 바탕으로 한다.³⁰⁾

인용문은 1976년 겨울 지리산 칠불 운상원(七佛 雲上院) 선원에서 혜암을 모시고 수행했던 원용의 회고담이다. 원용은 “두타행을 내용으로 한 참선수행법은 정법안장이 살아 숨 쉬는 불교의 바른 법이요 핵심이 됨을 말해주며, 불교를 걸머지고 이끌어가는 所以”라고 하였다. 원용은 당시 혜암이 밤늦게 오더라도 당신의 일과대로 저녁도 잡숫지 않고 밤이면 정진을 함께 하면서 오후불식과 장좌불와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혜암은 두타행을 통해 “마음의 법을 종취(宗趣)로 삼고 마음을 궁구하여 자성을 깨침으로써 대지혜를 이루어 생사해탈법을 성취하여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공부”인³¹⁾ 정법안장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였다.

IV. 1994·1998년 개혁불사와 혜암

1. 1994년의 종단사태와 개혁불사

1994년 서의현 총무원장 3선 저지투쟁은 거시적 측면에서 불교 자주화 운동이었다. 서의현 체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교계에도 뿌리깊이 남았던 식민지 잔재와 독재의 영향이었다. 더욱이 당시 정부는 불교계의 개혁주장을 외면하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순수한 종단개혁의 노력을 중

30) 원용, 「두타행이 끊어지면 정법안장이 끊어진다」, 『해인』 240, 해인사, 2002, p.14.

31) 원용, 앞의 글, p.15.

단의 분규 또는 종권을 향한 폭력배의 모습으로 규정하려 했고, 단식 정진하는 양심적인 개혁주체들을 무차별 구타, 연행하는가 하면 경찰력의 옹호로 전 종도가 불신하는 서원장의 3선을 관철케 했기 때문이다.³²⁾

불교의 권위를 추락시킨 서의현 체제는 불교도의 공적(公敵)이 되었다. 3선저지 투쟁에서 개혁세력에게 언론과 국민이 지지를 보낸 것은 서의현의 도덕적 결함보다는 그가 반민주적 정권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세력과 서의현 체제가 갖는 성격은 불교내의 개혁 대 반개혁이 아니라 불교 자주화세력과 반자주화의 대립구도이다.³³⁾ 결국 서의현 3선저지투쟁은 곧 불교자주화 투쟁이며, 이 자주화 투쟁은 곧 종단개혁운동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중앙총회의 소집이 16일 공고되자 종단개혁과 승풍진작을 위해 논의해 왔던 8개 단체는 1994년 3월 23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추)를 공식 출범시킨다. 이후 26일 범종추가 조계사에서 시작한 구종법회부터 4월 13일까지의 장엄한 진행과정은 불교자주화운동을 토대로 하는 종단개혁을 위한 3선 저지투쟁이었다.

1994년 4월 5일 대각사에서 개최된 원로회의에서는 3월 30일 종회 무효 및 4월 10일 승려대회를 결정하였고, 범종추 지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서의현 체제의 교묘한 방해공작은 끝내 4월 9일 서암 전 종정스님의 읍소문 발표와 원로중진회의 개최를 통해 승려대회개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개혁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마침내 4월 10일 승려대회는 강행되었고, 4·13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서의현 체제는 막을 내렸다. 이와 같은 범종추의 성과는 불교자주세력의 확산과 대중의식의 변모에 있었으며, 종단개혁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계기가 되었다.³⁴⁾ 특히 1994년 4월 5일 원로회의의 결정은 종단개혁불사의 성공에

32) 도법, 「단식정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종단의 현실」, 『선우도량』 6, 조계종선우도량, 1994.5, p.34.

33) 박재현, 「개혁회의의 평가와 종단의 방향모색」, 『선우도량』 7, 조계종선우도량, 1995.7, p.80.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³⁵⁾

1994년 개혁은 당시 총무원장 서의현 스님의 3선 강행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해암 큰스님을 필두로 한 원로스님 열한 분은 3선 개혁 무효와 총무원장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승려대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의현 스님은 원로스님들의 결의는 무효이고 승려대회 개최도 금지하라는 종정 서암 스님의 교시로 맞셨습니다. 결국 4월 10일에 조계사 앞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승려대회가 열려 종정 불신임과 총무원장의 멸빈, 개혁회의 출범을 결의했습니다. 승려대회에서 거침없는 사자후를 토하며 구습의 척결을 통한 종단의 쇄신을 천명하고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시던 해암 큰스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개혁 과정에서 해암 큰스님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으셨어요. 큰스님을 비롯해 종단개혁에 동참한 스님들이 단식 정진을 하던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종정을 하실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다가 큰스님께 호된 경책을 들었습니다. 종정이라는 자리로 큰스님을 회유하려 했던 것이죠. 큰스님께서는 ‘단식도 힘든데 자네의 그런 말이 나를 더 괴롭게 하네’라며 혼내셨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큰스님은 수좌로서의 강단과 기개가 대단하셨습니다. 큰스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1994년 개혁은 물거품이 됐을 것입니다. 그해 11월 21일에 열린 선거에서 저는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23일에 원로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도 해암 큰스님께 인준하지 말라는 엄청난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절차를 통해 당선된 총무원장을 인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³⁶⁾

해암은 종단이 위기에 빠지자 일신의 안일을 접은 채 산중을 나섰다. 1994년 개혁 당시 원로회의 부의장 해암은 4월 4일 비룡·도천·원담스

34) 박재현, 위의 글, p.82.

35) 박재현, 「조계종 종단개혁불사」, 『선우도량』 6, 조계종선우도량, 1994.5, p.49.

36) 월주, 「두 번이나 종단을 구한 호법신장」, 『스승 해암』, 김영사, 2018, pp.28-29.

님과 함께 대각사에서 범종추의 개혁의지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였으며, 4월 5일 서암 종정을 제쳐두고 원로회의를 소집하여³⁷⁾ 서의현 총무원장의 즉각 퇴진과 승려대회 개최 결의를 이끌어냈다. 서의현은 원로스님들의 결의가 무효이며, 승려대회 개최도 금지하라는 종정의 교시로 맞섰다고 한다. 4월 8일에는 총무원측이 원로 중진회의를 소집했지만, 혜암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4월 10일 조계사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열려 종정 불신임과 총무원장의 멸빈, 그리고 개혁회의 출범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공개사과와 내무부장관 해임요구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혜암은 승려대회에서도 거침없는 사자후를 토하며 구습의 척결을 통한 종단의 쇄신을 천명하고 폭넓은 지지를 끌어냈다고 한다. 특히 혜암은 원로스님들과 함께 총무원 1층에서 3일 동안 공권력에 감금당한 채 단식으로 저항하면서 스님들을 이끌어 주었다. 그는 4월 11일에는 조계종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의 폭력사태 해결 때까지 조계사에서 무기한 구탄집회 개최를 선언하기도 하였다.³⁸⁾ 당시 혜암과 동고동락했던 월주는 혜암이 단식정진 때 중정자리로 회유하던 스님을 혼내던 일 등 온갖 회유와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강단과 기개가 남달라 혜암이 없었다면 1994년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해왔다면 개혁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니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천하를 다 통일해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종단의 모습이 엉터리로 엉망으로 변했기 때문에 개혁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혁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부처

37) 당시 참석학 원로의원은 혜암·비룡·도천·응담·도건·원담·지종·고송·청하(월하 위임)·운경·승찬(전권위임)이었다.

38) 편집부, 「종단개혁, 그 장엄한 진행과정」, 『선우도량』 6, 조계종선우도량, 1994, 5, p.64.

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인간 천상을 다 청정하게 맑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단 모습이 부처님 말씀과 달리 흐릿해지고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 흐릿해진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지 부처님 법을 개혁하자는 말리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못된 부문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발을 들여냈던 것입니다. 희생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발을 들여 냈던 것입니다.³⁹⁾

인용문은 해암이 종단의 종단개혁 이후 개혁에 대해 정의한 것이다.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했던 해암에게 개혁은 거추장스러운 군더더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부처님 법대로만 살고자 한다면 인간 천상을 청정히 할 수 있고, 천하를 모두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탄압과 수탈과 착취가 지속되었던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의 우리 불교계는 한국불교가 지닌 정통성이 소멸되고, 유구한 전통성 역시 불조의 혜명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해방이후 봉암사결사를 통해 정법(正法)의 기치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뿌리 깊은 식민지불교의 잔재는 여전했고, 부조리한 정권의 영향은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수립하기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해암은 정법을 실천하면 이법(非法)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고 믿었다.

해암은 1995년 종단개혁 1주년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석가가 세상에 나오지 않고	釋迦不出世
달마가 세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達磨不西來
부처님의 법은 온 천하에 두루하여	佛法遍天下
봄바람에 저 꽃은 활짝 핀다.	春風花滿開 ⁴⁰⁾

기념사의 부제(副題)는 “본래로 텅 비어 너와 내가 비었는데 많이 모

39)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열림원, 2013, pp.42-43.

40) 해암문도회, 『해암대중사범어집』 I, 해인사 원당암, 2007, pp.320-323.

인 대중은 무엇이며 기념사는 무슨 일입니까?”이다. 혜암에게 1994년 개혁불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쩌면 이런 물음이, 기념식이 쓸데없이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때문에 모든 것이 본래 제자리로 돌아갔거늘 대중들이 애써 일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혜암은 “선악 시비가 본래 공(空)하고 마군과 제불이 원래 동체이며, 생사열반은 몽중의 꿈이요 이해득실은 거품 위에 거품”인 도리를 알고 있었다. 때문에 게송처럼 석가나 달마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불법은 온 천하에 두루 하며, 봄바람에 활짝 핀 꽃인 것이다. 결국 혜암은 삼세의 모든 부처와 역대 조사가 바람 없는 파도를 일으키고, 살을 굶어 중기를 냈다고 타박하고 있다. 그러나 2주년 기념사에서는 “법난 당시 공권력과 폭력주의의 맹화(猛火) 가운데 애종단(愛宗團)을 위하여 사부대중이 백절불굴하고 대동단결하여 대작불사를 한 결과에 개혁종단이 꽃이 피고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하였고, 혜암은 다음과 같이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대중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종단개혁정신을 되살려 계승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불사를 위한 것은 오직 불교 자주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교발전의 방향 모색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타당성 모색이 여러모로 있겠지만 근본 문제는 밖으로 해결하기 전에 첫째는 자신을 우선적으로 정화할 일이며, 둘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戒로 스승을 삼으라’는 계율을 엄수할 일이며, 셋째는 利益衆生하는 일을 실천한다면 자연히 종단발전과 자주화가 구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말씀하시되, ‘범의 굴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범의 새끼를 잡겠는가.’ 하였으며,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과실나무를 심으라고 하였습니다. 위법망구하여 청백가풍과 정법수호와 흥익중생하는 원력을 실천합시다.⁴¹⁾

41) 혜암문도회, 『宗團改革二週年記念辭』, 『혜암대종사범어집』 I, 해인사 원당암, 2007, pp.324-327.

해암이 대중을 향한 당부는 비법(非法)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을 정화시키고, 지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정법수호와 흥익중생의 원력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1994년 개혁의 결과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첫째, 총무원 1원 체제에서 교육원과 포교원이 분리되었다. 총무행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종단 개혁 후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총무원장 권한의 분산과 종정기관에 대한 중앙총회의 견제 및 비판 기능 강화,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이었다.⁴²⁾ 둘째, 비전과 긍지를 가지고 교단을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사부대중에게 만들어 주었다.⁴³⁾ 개혁의 주체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총무기관의 부·국장등 주요소임과 중앙총회의원 등으로 제도권 내로 진출하여 개혁초기 신선한 바람을 유지하고 새로운 종단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⁴⁴⁾

2. 1998년의 종단사태와 개혁불사

1998년의 종단사태는 1994년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다. 당시 월하 종정은 대사면을 통해 94년 종단사태와 관련하여 징계 받은 스님들을 포함하여 정화 이래 징계 받은 모든 스님들의 사면을 교시하였다. 그러나 월주 총무원장은 이에 불응하였다. 급기야 1998년 10월, 월주 총무원장의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출마가 3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종단은 또 다시 격렬한 분란에 휩싸였다. 이에 11월 6일 종정 명의로 종단 원로 중진회의를 소집하고자 하였다.⁴⁵⁾ 그러나 11월 8일 원로회의 의장

42) 박재현, 「1994년 종단개혁 이후의 변화와 성과」, 『참여불교』 3·4월호, 참여불교재가연대, 2004, pp.6-7.

43) 「94년 조계종 종단개혁, 그 이후」, 『참여불교』 11·12월호, 참여불교재가연대, 2002, p.108.

44) 박재현, 「1994년 종단개혁 이후의 변화와 성과」, 『참여불교』 3·4월호, 참여불교재가연대, 2004, p.8.

혜암은 해인사에서 원로 8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헌종법대로 선거를 치르고 모든 사항은 선거가 끝난 후 원로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3선 출마를 반대하는 측은 11일 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점거 후 ‘정화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당시 ‘정화개혁회의’ 측에 있던 주축 인물들은 1994년 중단개혁을 진척시켰던 인물들이기도 하였다.⁴⁵⁾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종단의 혼란은 조계종의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마저 양분되게 만들었다. 정원 22명인 원로회의 의원 중 7명은 月下 종정이 임석한 가운데 다른 원로의원 8명의 위임장을 받아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회의를 열고 ‘송월주 총무원장의 해임과 중앙총회의 해산 그리고 정화개혁회의 추인’ 등을 결의했다. 또한 원로회의 소집을 거부한 의장 혜암을 제명하고 벽암(碧岩) 원로회의 부의장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혜암은 서울 종로구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일 원로의원들의 모임은 종헌 종법 상 효력을 갖는 정식 원로회의가 아니다’ 그리고 ‘정화개혁회의는 종헌종법을 무너뜨리는 불법적 폭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로회의를 개최하여 입장을 밝히겠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정화개혁회의 측은 26일 총무원 청사에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이에 30일 기존 총무원 측은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총무원 청사의 점수를 시도하였으나 정화개혁회의 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공권력(경찰)의 도움을 받아 12월 23일 청사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양측이 각기 상대방의 주요 인사들을 각각 징계하는 등 종단은 혼미한 양상을 보였다. 1999년 3월 29일 월하 종정은 종정의 명의로 ‘조속히 총무원에 진출해 제2정화의 깃발을 드높이라’는 교시를 내렸으며,

45) 불교인권위원회, 『화합을 위한 이해와 용서』, 90년대 중단사태의 회고와 반성 좌담회 및 토론자료집, 불교인권위원회·조계종승려사면복권추진위, 2001, pp.27-29.

46) 여태동, 「중단개혁, 10년이 남긴 과제」, 『참여불교』 3·4월호, 참여불교제가연대, 2004, p.20.

월탄(月誕)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도 3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월하 종정의 권위를 회복하고 청정승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 2일 혜암이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던 1998년의 종단분규는 일단락되었다.⁴⁷⁾

4년 뒤 이른바 정화개혁회의의 총무원 불법 점거에서 비롯된 ‘98년 사태’때에도 종회의원들과 함께 우정으로 승려 대회에 참석하여 종단의 큰 어른으로서 중심을 지키고 윗 어른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고 지시를 내리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背師自立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종헌수호와 종단의 정통성을 지키는 데 몸을 던졌습니다.⁴⁸⁾

인용문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의 회고담이다. 혜암은 1998년 종단사태 당시에도 ‘정화개혁회의는 종헌종법을 무너뜨리는 불법적 폭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종헌수호와 종단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진력하였다. 종헌종법은 부처님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것이다. 때문에 혜암은 개혁의 내용을 담은 종헌종법은 법이라고⁴⁹⁾ 하였다. 스승이라도 비법이라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종헌종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4년 종단개혁을 이끌어내고 1998년 분규를 해결할 때 큰스님의 단호한 역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종단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큰스님께서서는 고비 때마다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개혁 과정에 동참하면서 큰스님의 의지와 결정에 큰 박수를 보냈던 기억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셨던 큰스님은 당시 동참대중에게 큰 힘이었습니다.⁵⁰⁾

47) 조기룡, 「혜암선사의 수행리더십 형성과 하화증생」,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제1회 학술대회』, 혜암선사문화진흥회, 2014, pp.65-67.

48) 송월주, 「공부하다 죽어라! 수행자의 표본 성관당 혜암대종사」,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제1회 학술대회』, 혜암선사문화진흥회, 2014, p.16.

49) 월주, 「두 번이나 종단을 구한 호법신장」,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p.30.

1998년 종단의 분규 당시 혜암을 모셨던 지환은 혜암의 역할은 단호했고, 당면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었다고 하였다. 그가 간단명료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정과 함께 부처님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 때의 청정가풍과 두타행을 근간으로 정법안장을 수호하고자 했던 그의 결연한 의지의 결과였다.

V. 맺음말

혜암 성관은 한국 근현대불교사의 상징적 존재 가운데 1인이다. 한국근현대사와 함께 얽혀있는 불교계의 뿌리 깊은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정법안장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진력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혜암은 성철과 함께 한국근현대불교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다.

혜암의 출가는 온전히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고, 불법을 위한 것이었다. “가사장삼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가사 밑에서 인신을 잃어버릴 일이 고통”이라고 했던 스승 인곡 역시 혜암에게는 수행의 지남이 되었다. 아울러 성철과 함께 했던 1947년 봉암사결사는 그의 수행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발우와 옷을 바꾸고 산신각과 칠성각을 없앴던 결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법을 확립하여 잃어버린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이후 한암·동산·경봉 등 선지식을 모시고 해인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한 혜암의 여정은 공부와 깨달음이라는 유일한 집착의 결과였다. 정법안장을 지키기 위한 그의 두타행은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을 넘어 서서 대변을 보고, 목에 줄을 걸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혜암의 위법망구의 수행은 격동의 한국현대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 1994년과 1998년

50) 지환, 『큰스님의 수좌정신이 그림습니다』, 『스승혜암』, 2018, p.158.

종단의 비법(非法)을 초래한 사태에 대한 개혁불사 당시 혜암은 온갖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았다. 젊은 날 “청정계를 수호하여 정진하라.”는 스승 인곡의 경책과 정법안장을 지키기 위한 신념을 지켰다. 그는 ‘개혁’은 부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의 개혁논리는 단순했다. 때문에 석가나 달마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불법은 온 천하에 두루하다고 했다. ‘공부하다 죽으라.’고 평생을 외쳤던 혜암은 임종할 때도 후학들에게 참선 잘하라고 당부했다.

후학들과 한국현대불교계는 한국불교의 두타제일 혜암의 수행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정찬주, 『가야산의 정진불』 1·2, 랜덤하우스, 2010.
- _____, 『공부하다 죽어라』, 열림원, 2013.
- 혜암문도회, 『혜암대종사범어집』 I·II, 김영사, 2007.
-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제1회학술대회』 자료집, 2014.
-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 원각, 「나의 스승 혜암 큰스님」, 『海印』 322, 해인사, 2008.12.
- 혜암, 「공부 위해 텅 비워야」, 『禪苑』 144, 선학원, 2007.7/8.
- 佛光會, 「혜암(惠庵) 스님 : 전생에 지은 복을 알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원망하며 부질없이 허덕이네」, 『佛光』 374, 佛光會, 2005.12.
- 혜암선사(慧庵禪師), 「화두(話頭)를 참구(參究)하는 법 : 다시 듣는 禪窓夜話」, 『禪文化』 50, 선문화사, 2004.9.
- 여연, 「은사스님께 바치는 차 한 잔의 시 : 혜암 대종사 열반 2주기를 기리며」, 『海印』 262, 해인사, 2003.12.
- 김재경, 「혜암스님」, 『禪苑』 98, 선학원, 2003.
- 편집부, 「한국 정통 산맥을 계승한 혜암 스님」, 『설법』 142, 설법연구원, 2002.4.
- 혜암, 「臨終偈 - 혜암 대종사 열반송 친필」, 『海印』 240, 해인사, 2002.2.
- 지관, 「종정 혜암 대종사 행장(行狀)」, 『海印』 240, 해인사, 2002.2.
-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다 :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열반」, 『禪文化』 18, 선문화사, 2002. 1.
- 편집부, 「혜암 큰스님 가시던 날」, 『불광』 328, 佛光會, 2002.2.
- 병진, 『열반에서 다비까지』 : 혜암 큰스님 다비장 참관기, 문이재, 2002.
- 탁마병안, 「혜암선사, 다시 듣는 법문」, 『佛入』 38, 대한불교불입종 세간불교사, 1998.6.
- 「혜암스님을 찾아서」, 『고경』 2, 백련불교문화재단, 1996.
- 원용, 「두타행이 끊어지면 정법안장이 끊어진다」, 『해인』 240, 해인사, 2002.
- 성철, 「성철스님 법문을 통해서 본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 1995.
- 박재현, 「조계종 종단개혁불사」, 『선우도량』 6, 조계종선우도량, 1994.
- _____, 「개혁회의의 평가와 종단의 방향모색」, 『선우도량』 7, 조계종선우도량, 1995.7.

편집부, 「종단개혁, 그 장엄한 진행과정」, 『선우도량』 6, 조계종선우도량, 1994, 5.

불교인권위원회, 『화합을 위한 이해와 용서』, 90년대 종단사태의 회고와 반성 조담회 및 토론자료집, 불교인권위원회·조계종승려사면복권추진위, 2001.

박재현, 「1994년 종단개혁 이후의 변화와 성과」, 『참여불교』 3·4, 참여불교재가연대, 2004.

김광식, 「봉암사결사의 재조명」,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Abstract

Trends in Korean contemporary Buddhism and Hyeam-Sunggwan's practice and edification

Oh Kyeong-hwo
(Lecturer, Dongguk Univ., Gyeongju-si)

Zen master Hyeam is the symbolic presence of modern Korean Buddhist history together with Zen master Seong-cheol. His lifelong banquet and the practice such as “sitting, not lying throughout his life(長座不臥),” and “afternoon abstinence(午後不食)” became his symbol. In 1947, when he participated, the Bongamsa Association became the occasion to strengthen his spirit of execution. In addition, the remnants of colonial Buddhis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dissolved and the legitimacy of Korean Buddhism was reestablished. He took the lead in clearing the confusion and contradictions of the Jogye Order in 1994 and 1998. Hyeam said that ‘reform’ was a word that came because he did not follow the Buddha’s word. In the end, Hyeam’s life was to carry out Buddha’s teachings with thorough performance.

Key words

Seong-cheol, Hyeam, Korean modern Buddhism, Seon practice, Bongamsa, Association Buddhist reform